

# 예수님의 식탁에서 그분을 더 자주 만나다

## Encountering Jesus at His Table More Frequently (Part 1)



임마누엘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 이야기 중 하나다. 절망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난다. 비록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내하시며 은혜로 함께 걸어주신다. 이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을 뵈 소망으로 나를 채워준다.

한편, 개혁적인 나의 확신에 도전하는 부분도 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빵을 떼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걷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꾸짖으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눈을 뜨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식탁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장소가 된다. 개혁주의 유산은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다. 맞는 소리다. 내 겸손한 견해로는 그렇다. 말씀의 권위에 있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르침에서, 심지어 대부분의 개혁교회에서 강대상이 맨 앞 정 중앙에 있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가는 제자들의 눈은 권위있는 말씀(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이하가 아닌!)을 풀이했을 때가 아닌, 떡을 떼때 떠졌다.

우리가 말씀을 적절하게 강조하는 것이 때로는 안타까운 부산물을 만들기도 한다. 성찬을 마치 옵션처럼 가끔 하는 것인마냥 옆쪽으로 강등시키는 것이다. (개혁 주의자들은 말씀을 대문자로 Word 라고 쓰고 성례는 소문자로 sacraments 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 임마누엘로 가는 제자 이야기는 그런 인식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성찬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집 벽에 걸려있는 학위증서는 내가 “말씀과 성례(the Word and Sacraments)”의 사역자라고 명시한다(내가 받은 학위증서에는 두 단어 모두 대문자이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매 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왜 성찬을 매주 거행해야 한다고 똑같이 주장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 분명한 전례가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수세기 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매주 첫날” 해 왔던 것에 대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믿는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비록 사람들(적어도 평신도)이 종교개혁 때까지 성만찬을 덜 가졌지만(때론 1 년에 한 번),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매주 성만찬을 갖도록 주창했다.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전세계의 대다수 기독교인들과 교단 전반에 걸쳐 성찬식을 매주 하는 패턴으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해 성찬식을 더욱 자주 거행할 수 있다. 벨직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의 약속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과 은혜를 보증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article 33) 하나님께서 성만찬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물질(성만찬의 빵과 주스뿐 아니라 세례의 물)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람들과 그분의 은혜를 나누신다. 그렇다. 우리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불 타오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 세례의 물을 느끼고, 성만찬의 빵과 잔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음미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신다. 임마누엘의 저녁 이후 수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 눈이 띄여지도록 떡을 떼는 방법을 사용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출처: <https://network.crcna.org/faith-nurture/encountering-jesus-his-table-more-frequently>